

현장과 시각

전남 중학생들의 가능성



최재호

체육부 차장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실력이 대도시 학생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교사들의 지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대도시권 학생들을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실시한 전국 중·고등학생 12만 2천600여 명에 대한 중등학력진단평가에서 전남지역 중학교 1학년 학력이 대도시권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아본 전남지역 교사들의 자신감이다.

이 교사는 전남권 학생들의 자질이 이만큼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면 얼마든지 대도시권 학생들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적으로 실시한 중·고등학생 12만 2천600여 명에 대한 중등학력진단평가 결과 중1학년의 경우 전남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는 국어 85점, 영어 80점, 수학 80점, 사회 82점, 과학 78점으로 나타났다.

과학과목은 대도시권에 비해 1~2점 정도 더 높게 나오고, 국어와 사회과목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우려해 왔던 초등학생들의 도·농간 학력격차가 없음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전남권 학생들의 자질이 우수함을 입증받았다. 비록 서울 등 대도시권에 비해 영어와 수학은 2~3점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대도시의 사교육 열풍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목할 것은 목포, 여수, 순천지역은 국어 86점, 영어 84점, 수학 82점, 사회 83점, 과학 79점 등 평균 82.8점으로 영남권 시 단위 학생들의 성적을 앞질렀으며 수도권 시 단위와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02년부터 타시·도에서 실시하지 않는 진단평가 실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관리 ▲매년 15억원을 투자한 중학교 특별보충과정 운영 ▲방학동안 현직교사와 대학생 강사 등을 초빙한 기초학력 향상노력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전남지역의 중학생들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원석’임을 확인했다. 이제 원석을 갈고 닦아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당국과 중·고 교사들이 해야 할 몫이다. 결코 공부기계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도시학생들을 능가하는 인재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lion@kwangju.co.kr

北, 李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비핵·개방·3000’은 반동적 실용주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지금처럼 북한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의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반복 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이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라고까지 지칭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저들의 진미사대 반복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당선 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발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평한 것도 처음이다.

또 노동신문이 ‘개인 필명’이라며 논평을 내는 것은 흔하지만, 자사의 ‘논평원’ 자격으로 글을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고,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점에서, 이번 논평

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내와 침묵을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비핵·개방·3000’을 “반동적 실용주의”라고 주장하고, 새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 막아나서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를 “실용외교의 농락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美금융감독체제 대공황후 최대 개편

FRB 감독 대상 헤지펀드·보험까지 확대

세계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대공황 이후 최대규모의 미국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제시됐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31일 (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의 감독 대상을 예금은행인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증권사, 헤지펀드, 보험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은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 이후 시장의 신

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FRB의 증권사들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에서부터 지방 보험사와 모기지 브로커 규제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개혁안을 담고 있다.

폴슨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은 현재 5개의 은행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FRB에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혁안은 또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 기관을 신설,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까지 맡기도록 했으며, 연방 모기지위원회 창설도 의회

홍라희씨 오늘 소환

삼성특검 ‘비자금 미술품 구입’ 참고인 조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팀은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 2일 오후 3시께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63) 삼성 리움미술관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홍씨는 삼성이 그룹 내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동원해 해외의 고가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홍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당시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이었던 홍씨가 해당 사건 피고발인이라는 점에서 관련 조사도 함께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석 특검보는 “홍 관장을 상대로 미술품 구입에 관한 여러 의혹과 실제로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자금이 어떤 것인지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명의로 된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실제로는 이건희 회장의 소유이며, 차명주식 배당금 가운데 일부가 해외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따라서 홍씨가 비자금·차명재산의 존재와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입 경위를 알았는지, 비자금 운용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지시는 있었는지 등의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홍씨를 수사한 뒤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 홍씨가 검찰 수사 당시 서면진술서를 낸 적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친(親) 티베트 시위대가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중앙 성당 앞에서 개최한 대중(對中) 항의 촛불시위에서 한 아이가 촛불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中 ‘군인 티베트 시위대 위장설’ 부인

중국에서는 31일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서 발생했던 유희 시위에 군인 수백명이 승복을 입고 승려로 위장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음모설을 일축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라

싸에서 발생한 폭력적 범죄의 진실은 모두에게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장위 대변인은 이날 달라이 라마가 최

근 뉴델리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달라이 라마는 근거없는 소문을 인용하고 있으나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비난하고 이는 그의 죄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달라이 라마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군인 수백명이 승복을 지급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며 중국 정부가 폭력사태의 배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www.kimyoung.co.kr. 5월 1일. 김영 대학편입학원. 011-833-8283

영어교사 양성과정 입학생모집. 영어교사 23000명 내년부터 채용! TESOL. 당신도 영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광신대학교 교육대학원(TESOL교육원) www.kwangshin.org 017-269-0582

www.kwangshin.co.kr. 티베트 시위를 이어가는 달라이 라마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광신대학교. 011-833-8283